무조건 맡겨 놓을 수 있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자성불을 섬기고 아래로는 네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라. 그러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제도가 돼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나투느니라.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 나투면서 모든 사람에게 약사도 되고 칠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지장도 되고 용신, 지신까지도 돼 주느니라. 누가 응해 달라고 하든지 응신이 돼서 전부 천백억으로 나투느니라.' 이러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하하….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머리 깎은 스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유마힐 거사 아시죠?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마힐 거사도 그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그게 다 부처님들입니다. 머리 깎고 입산한 사람이나 입산을 안 한 사람이나 마음 닦는 것은 같다는 그 뜻을 여러분 앞에 보여 주고 또 '여러분도 공부해라' 하는 뜻에서 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야죠. 모두가 그렇게 해서 시급히 업식들을 녹이고 다스리면서 실천을 해 나가는 이러한 공부가 됐으면 합니다. 또 누구 없습니까?

그러니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요놈의 자식, 왜 공부는 안 하고 요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느냐?" 하고 그냥 밖으로만 야단하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지 말고 안에다 놓고 "애! 너 밥이나 먹고 다니니? 잠은 어떻게 자니? 집에 들어와서 자야 편안하지 않겠니?"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인의롭게 말해 주세요. 봄에 꽃 피듯이 말입니다. 겨울에는 보잘것없었던 고목이 봄이 되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오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조건 없이 모든 게 들어옵니다.

질문자2(여) 저는 공부를 딴 분보다 많이 못 했습니다. 마음자리에다 맡기는 공부를 저 혼자서 하긴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서 감당 못 할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큰스님 사람은 한 찰나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놈은 누구고 그놈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는 놈은 누구고 자다가 일어나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꾼 놈은 누구고 생시에 이렇게 다니는 놈은 누구냐?' 이 모두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옹졸했을 뿐이지 생각이 넓다면 이 우주를 그냥 단번에 삼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삼천대천 세계를 단박에 삼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면 이게 뭔 소린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참 멋진….

그래서 우리가 그 도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냥 삼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참, 위로는 평등공법이 되고 아래로는 칠활궁공법이 되고, 셋째 번에는 팔수레공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들고 나면서 다양하게 자재할 때 비로소 '자재할 것도 없다. 자재한 것도 없다. 나는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한 예도 없다. 나는 말한 것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게 나오죠. 그러니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데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 감당할 수 없는 그 보살님의 마음이나 감당하기 어렵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그거나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허,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나는 것도 네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 거기다가 그냥 맡겨 놓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놈은 누구고 감당하기 쉬운 놈은 누구냐?' 하곤 그냥 거기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맡겨 놓을 수 있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샘터에서 샘물이 꼬약꼬약 나올 때에 샘물 맛을 알겠죠.

> 겨울에는 보잘것없었던 고목이 봄이 되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듯이
> 이렇게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오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 비로소 조건 없이 모든 게 들어옵니다.

질문자3(여)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을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나 되는 것 같고 하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심장판막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 나을지, 저는 수술받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스님께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그건요, 댁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질문자3(여) 마음에요?

큰스님 예. 수술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진짜 자기 자성신을 믿어야 되죠. 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신을 믿는 거예요. '나를 수억겁 동안 이렇게 진화시키면서 사방팔방으로 끌고 돌아다녔구나.' 하고 내 주인이 나를 이끌어 온 거를 진짜로 믿을 때, 진짜로 마음의 주인을 믿을 때 성과가 있겠죠. 진짜로 믿는다면 안 해도 좋고요,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바깥으로 끄달릴 거고요. 그거는 당신의 생각에 달린 거죠. 그건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질문자3(여)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안 잡히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큰스님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댁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되고요, 약사가 되려면 약사가 되고요, 또는 마구니가 되려면 마구니가 되고요, 사람 끌어가는 사자가 되려면 사자가 되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허허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질문자4(여) 반갑습니다. 저는요, 합천 해인사 자운 스님 사리 친견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수녀님이 그 사리를 친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요, 여기 한마음선원에 다니면 한마음선원에만 가야 되는 거다, 딴 절에 갈 때는 그 절에 구경하러 간다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먼젓번에 어느 회관에서 한 스님께서, 절에 갈 때는 부처님을 믿고 가는 거지 스님의 썩을 육신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절에 계시나 부처님은 다 같은데 왜 꼭 딴 절에 갈 때는 그 절에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하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계 어디에 있든 부처님은 한 분이고 제 마음이 부처이듯이 서로가 다 부처님은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시어머님께서 그러시니까 사실 시어머님이 조금 밉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님한테 이 궁금증을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말씀 잘하셨어요. 참 말씀 잘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헤아릴 수 없이 생명들이 태어났어도 보살님 하나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무효입니다. 그죠? 없죠?

질문자4(여) 예.

큰스님 그렇습니다. 상대도 없고 아무것도, 미움도 고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댁에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생기고 세상이 모두 벌어진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모든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다' 하는 것은 평등한 생명! 평등한 생명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다. 한 생명이다."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절에 사람이 없다면 부처가 없느니라." 그것이 왜냐? 생명은 다 똑같지마는 씀씀이는 다 달라요. 차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점이 모두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건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 불을 모셔 놔도 석가세존은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또 문수보살은 생각을 내는 법신을 말합니다. 법신이 생각을 한다면 보현신은 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현신! 즉 말하자면 화신이자 보현신이죠.

자기 다리가 어디에 부딪치면 자기 다리를 자기가 만지죠? "아이구, 아퍼!" 하고요. 이게 보현신의 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생각을 내는 그 자체가 바로 법신입니다. 그러니 한생각에, 한마음에 의해서 마음을 내고 몸이 움죽거리고 하는 것을 문수, 보현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한마음이 동방에는 아촉불, 서방에는 아미타불, 이 세상은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고, 또는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어찌 그 이름들만 지어 놨겠습니까?

여러분, 고걸 여러분 가정에 비유해서 본다면 그 이름이 말입니다, 자식 노릇을 할 때의 아들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사위라는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형이라는 이름, 아우라는 이름, 친구라는 이름, 그렇게 이름이 많듯이 부처님의 그 마음으로서 부처님의 이름도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아촉불이다 아미타불이다 뭐, 또…. 그러니까 찰나에 바뀌어서 돌아가는 대로 이름은 다른 것입니다, 전부.

예전에 조선 시대 때에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냥 스님들 붙들어다 볼기를 때리고 이랬기 때문에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칠성이다 독성이다 용왕이다 하고 전부 붙여 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교 탄압을 하지 않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 속에서 나부터 알아야만이 모두 돌아가면서 둘 아닌 도리와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기 때문에, 나부터 알아야 되겠기에 내 집의 전화통부터 놔라 이 소립니다. 내 집에 전화 놓을 때까지는 남의 집에 전화 놓은 것 쫓아다니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집에 전화 놓은 거에 가서 전화를 좀 하고자 하고 전화를 받고자 하고 이러는 짓을 하지 말아라. 내 집에 전화를 놔서 전화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할 때에 비로소 딴 절에 가 보면 알 수 있느니라.

질문자4(여) 그래서 저도 이 한마음 공부를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고, 제 주인공을 그만큼 믿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절에 못 올 때 제가 딴 절에 가 있으면 어머님 하시는 그 말씀이 뇌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스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아야 되겠다고….

큰스님 그것도 자유입니다. 병원에 가지 마라, 가라 이런 게 아니죠. 병원에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인데 그것이 안 되고 되는 것은 그 마음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는 억지로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질문자4(여)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이끌리는 대로 제 주인공이 하는 대로….

큰스님 예,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큰스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는 것도 누가, 아니 업식이 많아서 도둑질을 시키는 수도 있고 강도질을 시키는 수도 있고, 또 정말 좋은 일을 시키는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일을 시키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스려서 잘해 나가는 데에 멋진 도리가 있는 거지, 아, 그걸 다스릴 줄 모른다면 안 되죠. 그냥 구덩이에 빠져도 법, 구덩이에서 나와도 법이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것도 법이라면, 그러면 잘못돼도 좋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그건 자유에 맡깁니다.

※위 법문은 1992년 4월 26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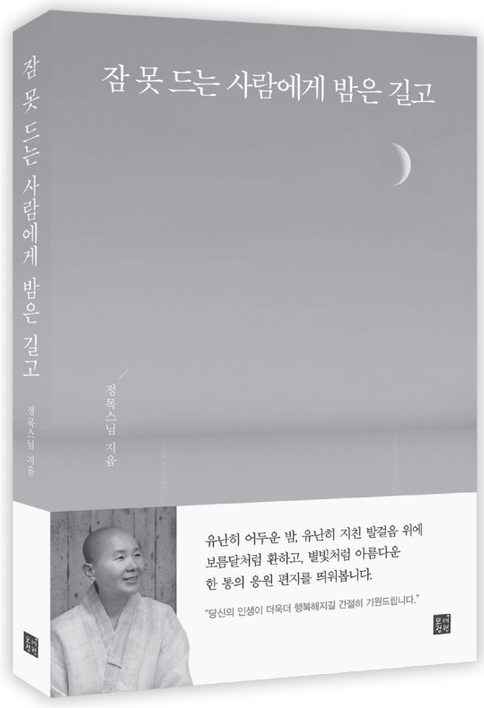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